

## News

### Fed "미 금리 0.75%p 인상...자이언트 스텝 현실화"

매일경제

Fed, FOMC정례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종전 연 0.75~1.00%에서 1.5~1.75%로 75bp 인상...28년만의 자이언트스텝으로 고물가 잡재우기 위한 초강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4.3%에서 5.2%로 상향... 물가인상 부담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인한 셈

### 5월 코픽스 1.98%...전월대비 0.14%p 대폭 상

파이낸셜뉴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 5월에도 큰 폭으로 상승...1.98%로 전월비 0.14% 상승... 1년전대비 1%p 이상 상승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 대상으로 산출되어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특징

### 우리금융지주, 30일 중간배당 기준일 결정

뉴시스

우리금융지주, 오는 30일을 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로 결정... 지난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 관련 기준일 명시하는 정관 변경에 따른 것  
사측은 중간배당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주주친화정책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 추후 이사회에서 실시여부와 배당금액 공시할 예정

### 4대 은행 금융자산 투자 90조 육박...시장불안 확산에 '촉각'

데일리안

올 1분기 말 기준 4개 은행의 트레이딩 목적 자산은 총 86조 4,69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 액수로는 8조 5,672억원 증가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트레이딩 자산이 25조 5,776억원으로 동기간 대비 0.7% 증가하며 최대 유지... 비이자이익 중요성 때문에 트레이딩 부문 키우고 있어...

### 복합위기 시작..."급전 필요하다" 보험 약관대출도 늘었다

이투데이

지난 3월말 생보업계 약관대출 잔액 증가세... 1분기 말 24개 생보사의 약관대출 총액은 47조 2,853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 가량 증가  
업계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비롯해 경기 회복 가로막는 요소 상존하고 있어 급전 필요한 수요자들의 약관대출 이용 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건보 의료데이터 보험사 제공논의 재개시...3조 데이터 확보할까

머니투데이

건보공단, 이달 중 증재한 초안 설명하고 이해 구할 예정... 보험업계, 의료계 등 각각 관련 간담회 진행 및 진행할 계획  
1차 증재안은 보험사들이 공공 보험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이 포함... 건보공단, 약 3조 4,000억건, 신평원 약 3조건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

### 7월 디폴트옵션 도입 앞두고 금감원, 퇴직연금 규제 푼다

조선비즈

금감원, 다음달 디폴트옵션 도입에 앞서 퇴직연금 관련 규제 완화 나서... 표준투자권유준칙 통일 등 불필요한 규제 없애 편의 제고 예정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 합계수익률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 증시 한파에 고꾸라진 장외시장... 야놀자·두나무 반토막

머니S

K-OTC 시장 시가총액 20조 2,140억원... 올해 최대규모 기록한 지난 2월 기준 46조 3,751억원 대비 절반이상 감소한 수준  
미국 금리 상승 등 글로벌 긴축 우려로 폭락 거듭하면서 K-OTC 시장도 덩달아 침체... 다른 장외시장 플랫폼도 상황은 비슷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